

한국영화감독협회 주최의 아트필름이벤트(아트필름 북지부)에서 <프린스판-베트남 리믹스>展이 열리고 있다. 제목에서 띄어주듯 베트남 예술이류 북지부 주최로 예술 교류에 힘쓰고 있는 아트필름 북지부의 만화극 그룹에 의해 준비한 전시이다.



▲ 김소환, <동간> 연작, 12개 프린트 중 일부, 각 30x38cm,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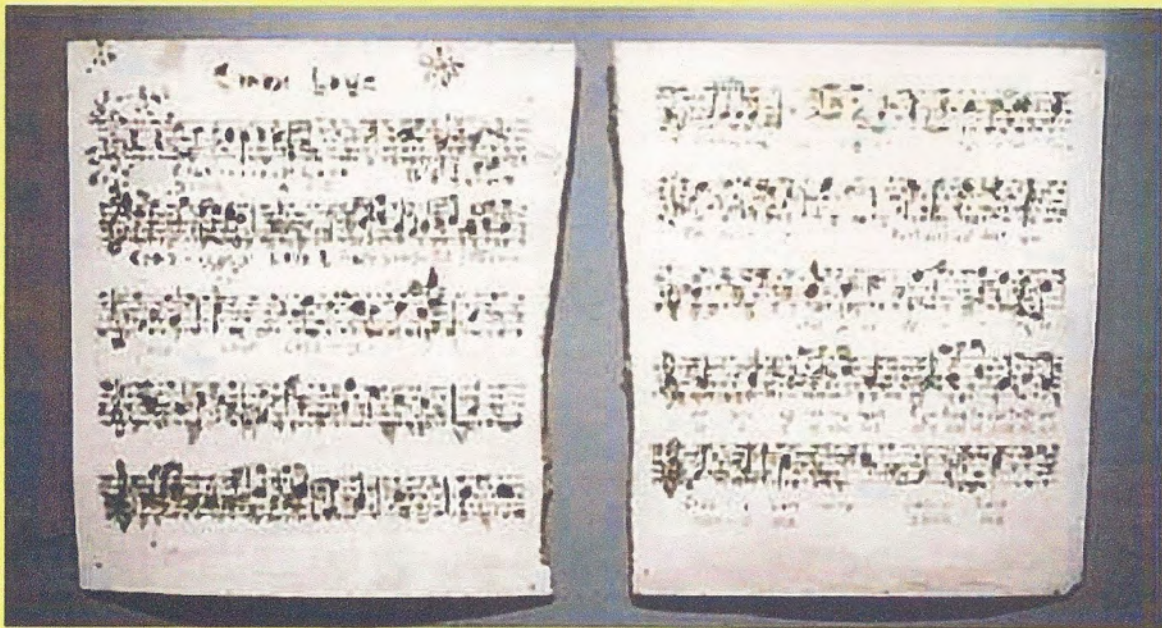
'동간'이라는 제목의 판화와 드레잉 작업중 하나는 작가 김소환은 자신이 태어난 해(1963년)의 역사적, 정치적 사건들을 도표로 만드는 시각상 시리즈 작업을 해왔었다. 김소환 시인 혹은 장간을 방불케 하는 같은 기호의 상징을 가지게 마련이다. 개인상이 곧 역사상의 작가의 자파상은 이렇게 도표로 상징이 되었다.

| 연대기로 요약된 두 나라의 애증 관계

- 1950년 한국은 한국전쟁의 파탄에 후진 38선을 따라 북과 북으로 분단되고, 1954년 베트남은 베트남전쟁으로 수도 17도 선을 따라 북과 북으로 갈라진다.
- 1965년 한국의 대량기수 연수자가 베트남에서 귀환하면 반인간 반인민 대량기수인 <황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를 부른다.
- 1973년 북한 핵무기 생산으로 10년 베트남에서 참전한다. 32만 5천 명 이상의 참전병이 베트남에 전병되었고, 그 후 5천 명이 부상을 입었다.
- 1986년 베트남 공화국은 '민이민이(포신)'과 북진에 자유시장 개혁에 시행하고, 1988년 한국은 제24회 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한다.
- 1992년 북한과 베트남에 의한 관계가 정상화한다.
- 1993년에 발표된 안중환의 소설에 바탕한 영화 <하얀 전쟁>이 엄청난 반향을 만들어져 개봉된다.
- 1994년 베트남 참전군인이기인 한 소설가 황성영의 <무기의 그늘>(최민 대한 출판부)이 미국에서 출간된다. 동경은 영화사에서 2권(1985/1988)으로 발표된 이 소설은 미군 안중환의 반자와 단행본 특정한 최초의 한국소설이다.
- 1997년 IMF 위기로 남한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베트남에 수출되기 시작한다.
- 2004년 베트남의 캄산 마이 땅이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음악 페스티벌에 참여한다.
- 2006년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한해 만 명 이상의 베트남 여성이 남한의 남성들과 결혼하는데, 대개는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결혼 이민정책을 통해서이다. 대개의 베트남 여성들은 남한의 드라마를 한국에 관한 지식의 주된 원천으로 언급했다.
- 2007년 유명한 베트남의 배우 누 퀴인(Nhu Quynh)이 출연한 주부드라마 <황남 신부>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드라마는 여중 50회 부적이었으나, 높은 시청률 덕분에 20회분이 추가된다.

물론하고도 친숙한 두 나라, 한국과 베트남의 애증관계는 전시후 연구에 '연대기'로 요약되어 있다. 의제에 의한 전쟁과 부단된 약소국의 동맹심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두 나라는 1982년 한국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하면서 골강이 깨진다. 한국은 참전을 통해 10억 달러를 원조받아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 소트화된 것은 동일 베트남은 1986년에 개혁 정책을 펴고 황금 성장세를 보여, 지난 해 WTO에도 가입하는 등 거도급 대열에 마침내 합류했다. 양국은 약한 30년 만인 1992년 수교했고, 베트남에 한국이 장다 하고 있다. 양국 간 통인도 늘어 2006년에만 1만 명이 넘는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에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산다.

| 베트남과 한국, 두 나라의 연결고리, 미술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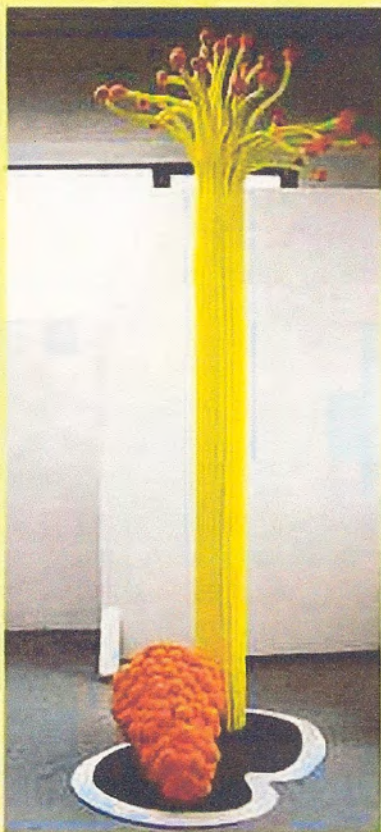


▲ 최영환, Crazy Love, 음향서보(나우판넬, 큐리핀 프락) 설치

작가 최영환은 소위전, 크리스마 북, 백진 소수명 등과 같이 일상적이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소재로 종종 몇몇 대중문화의 비하의 대담한 상상적 지극적으로 드러낸다.

전시회 기획한 큐레이터는 민영순과 비엣 레 두 사람으로, 이 둘은 어마인 필리피니아대 사제지간이다. 민영순은 7살 때 미국으로 이민했고, 비엣 레는 4살 때 베트남에서 미국에 건너가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살면서 느낀 민족 이산(디아스포라)의 고통의 근상사를 기록 왔다.

전시는 아시아 대륙 문화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안고 있는 역사적인 트라우마, 전통과의 간장 관계, 두 국가간의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교차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 및 양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작가 16명의 작품들을 통해 그러한 기억의 흔적을 좀 민영하는 대중문화로 다양하게 여쭙고 있다.



▲ 노원 만 승(Noyon Mahn HUNG), 시정으로 가라, 편바수에 구워, 2004
구제의, 공업의, 도시화와 바트남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지성의 급격한 변천에 대한 이슈들을 풍
찰하지 다루는 초현실주의의 동경들을 그려낸다.

▲ 티파니 정(Tiffany CHUNG), 사탕수수 총합주수, 공한재도, 2007
티파니 정은 시간, 조각음, 비디오 등 혼합 설치용과 감각적 감성을 활용하여 점차 문화적되는 비
트윈의 활기 넘치는 도시 생활을 표현하였다. 사탕수수 총합주수는 60년대 한국의 풍요로나 북위
지방 가장 대중적인 바트남의 음료 중 하나이다.

한국작가협회 오영삼이 비디오작품 '드라마'를 출품했고, 원민환은 '비행복'이란 '과시적' 위에 '남다'를 내놓았다. 화려한 색채의 세우더가 추상적 형사가 끌어가는 이영택의 영상 '문사건인', 양희의 다과영상과 한지민이 펼친 그 간 중후 베트남 주연에게서 만 인터뷰를 펼쳐하는 유순미의 '빛과음' 등이 주목할 만 하다. 또한 베트남 작가인 손수민은 뉴얼중 형기를 리가에 감당할만 남부의 리소연과 고거 전투 형기의 영상과 공룡을 형지한 티 부 거의 '불꽃의 형리법도', 공현 단 형의 그림 '시점으로 가라', 티파니 형의 '사람수수염의 연탄주소' 등 회화, 비디오,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전시장 중앙에는 관람객들이 면히 쉬면서 양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되어 있다.

전시는 아시아 문화가 국경과 넘어 뒤섞이면서 아시아의 정체성을 형성할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오는 18~19일, 한국 베트남 리믹스 심포지엄 개최



이번 전시와 연계하여 <트렌스 POP : 한국 베트남 리믹스> 심포지엄이 열린다.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 문화의 변화, 정치, 사회 및 경제적인 상호 작용을 살펴보는 비판적 담론을 구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한국과 베트남, 미국, 호주, 일본 출신의 학자, 작가, 프로듀서, 큐레이터 등 21명이 참석한다. '초 국가적 정경지대', '팝과 모더니티', '새로운 아시아의 주제성' 등 흥미로운 주제가 논쟁을 끈다. 심포지엄 후에는 단편영화가 상영되기도 한다.

아르코미술관 전시가 끝나고, 2008년 미국 순회 전도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안티팍게도 지원과 관심 부족으로 베트남 전시는 아직까지 어렵게 보인다. 아르코미술관 전시는 2월 29일(금)까지이다.